

# 광주 양림동의 과거·현재·미래 다 모였다

양림동 근대 문화 자료실  
시립사적도서관에 문 열어

문순태·한희원의  
거리서 만난 문학과 미술·소설  
6~20일 특별 전시회도

이장우 고택, 오웬 기념각, 양림교회... 근대문화유적의 보물 창고 양림동 여행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공간이 문을 열었다. 양림동에 흩어져 있는 공간들에 대한 자료와 양림동을 거쳐 간 문화 예술인들의 흔적을 한 곳에 모은 장소다. 양림동 나들이에 나서기 전 잠시 둘러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접하고 가면 여행은 훨씬 흥미로워진다.

시립사적도서관은 오는 6일 도서관 2층에 '양림동 근대 문화 자료실'을 오픈한다.

자료실에는 양림동에 대한 근현대 역사 자료와 함께 양림동 출신으로 양림동에 한희원 미술관을 운영중인 한희원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시인 김현승, 소설가 문순태, 음악가 정윤성과 정주, 드라마 작가 조소혜 등 양림동에서 활동했던 이들의 모습과 작품들을 전시한다.

도서관 2층 원형 공간에는 오웬기념각 등 양림동 유적지를 그린 벽화도 선보인다.

도서관은 이번 자료실 개관을 축하하는 특별한 전시회도 마련했다.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서관 1층 갤러리와 한희원 미술관에서 열리는 '문순태·한희원의 거리에서 만난 문학과 미술·소설 '타오르는 강'을 중심으로'전은 양림동에서 담 하나 두고 이웃해 살았던 두 사람이 함께 준비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문 작가의 역



6일 광주사적도서관 2층에 문을 연 '양림동 근대 문화 자료실'.



한희원 작 '저녁중'

작 '타오르는 강'의 완결편인 '타오르는 별'의 삽화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조명

한 '타오르는 별'은 2012년 완간된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의 8권과 9권에 해당하

는 작품으로 한 작가는 신문 연재 당시 삽화를 그렸다.

이번에 전시되는 70여점의 삽화 속에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과 함께 양림동의 옛 풍경들이 담겨 있다.

한 작가는 지난 2003년 광주남구문화예술회간 개관 기념 초대전 '거리에서 만난 문학과 미술'에 참여해 '양림동과 방림동의 문인들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문순태 작가를 비롯해 김현승, 이수복, 광재구, 조소혜의 작품을 그림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

오픈식은 6일 오후 6시 한희원 미술관에서 열린다.

문의 한희원 미술관 062-653-5435. 사적도서관 062-613-77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박재연 /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 / 첼리스트 이후성

## '우노 아니모' 창단 두번째 공연

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스페인어로 '한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트리오 '우노 아니모'(UNO ANIMO)는 지난 2014년 창단했다.

피아니스트 박재연(조선대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 첼리스트 이후성(광주시향 첼로 부수석)이 멤버다.

'우노 아니모'가 두번째 공연을 준비했다. 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우노 아니모'는 트리오 연주 뿐 아니라 지역 작곡가나 신진 연주자들과도 끊임없는 교류를 통한 다채로운 연주회를 구상 중이다. 이번에는 작곡가 한경진 전남대 교수의 작품을 국내 초연한다. 작품은 '트리오를 위한 '공간''이다.

그밖에 하이든의 피아노 트리오 39번 '집사'와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제1번을 들려준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공연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재연



이종만



이후성

## 아트컴퍼니 원 '경중비사' 5관왕

제 30회 광주연극제... 대한민국연극제 광주 대표 참가

극단 '아트컴퍼니 원'이 제30회 광주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 등 5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연극제에서 '경중비사'를 무대에 올린 아트컴퍼니 원은 최우수작품상과 함께 남녀 우수연기상(이기인·정경아), 희곡상(원광연), 연출상(원광연·사진)을 수상했다.

그밖에 신인연기상은 유피씨어터의 '가족땀땀'에서 열연한 이슬씨와 시인의 '보이지 않는 섬과 머구리'에 출연한 이승현씨가, 무대 미술상은 '가족땀땀'의 이현씨가 받았다.

극단 대표 원광연씨가 3년간의 준



비 끝에 선보인 '경중비사'는 장희원의 죽음으로 정신병까지 앓을 수 밖에 없었던 경중이 재워하던 4년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경중과 영조, 소론과 노론이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음해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인들의 허상을 그리고 있다. '경중비사'는 올해부터 전국연극제에서 이름을 바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연극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 '경중비사' 출연진.

## 중외공원 팔각정, 시민 휴식·교육공간으로

리모델링 해 오늘 개관

중외공원 내 팔각정(건축면적 580㎡, 지상 3층 건물)이 4일부터 시민 휴식과 교육공간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팔각정을 리모델링해 4일부터 개관한다고 밝혔다.

미술관은 그동안 팔각정을 최대한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 1억1800여만 원을 투입, 현대적 감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1·2층은 도예체험 등 시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층은 시민 휴식 및 조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앞으로 미술 전시, 문화 이벤트 공간으로 쓰일 예정이다.

개방시간은 하절기(3~11월)는 오전 8시~오후 8시이고 동절기(12~2월)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향후 이용객 수 등을 감안해 탄력적



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81년 3월 준공된 팔각정은 공원 이용객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됐으며 1995년 이후에는 지역작가 창작공간으로 쓰였다. 지난 2011년 3월부터는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으로 잠정폐쇄됐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